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9~3/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6	행복한화엄경:시공을너머핀꽃	정엄 지음	리즈앤북
2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담마빠다(법구경)	일아 옮김	불광출판사
3	요가수행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5)완전함내면의평화해탈의길	아헹가,존니에반스,더글라스 에이브람스	선요가	8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운주사	
4	천강에비친달(성운대사게송해설1)	성운 대사/조은자운주사		9	초역부처의말(2500년동안사랑받은)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5	365일눈부신하루를시작하는한마디	법상/용정운 그림	조계종출판사	10	선의황금시대	존C.H.우/김연수	한문화

책세상

모든 시대 생각한 역경 불사…〈화엄경소론찬요〉 완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화엄경〉은 비로자나 세존께서 보리도량에서 처음 정각을 성취하신 후, 일곱 도량 아홉 차례의 법문에서 일진(一眞)의 법계와 제불의 과원(果願)을 보여주시어 미묘한 현지(玄旨)와 그지없는 종취(宗趣)를 밝혀주신 최상의 경전이다. 이처럼 〈화엄경〉은 법계와 우주가 둘이 아닌 하나로 그 광대함을 말하면 포괄하지 않음이 없고, 그 심오함을 말하면 갖춰져 있지 않음이 없어 공간으로는 법계에 다하고 시간으로는 삼세에 통하고 있다."

지난해 원적에 든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 역경불사가 마지막 24·25·26권 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에 시작된 불사는 10년 만에 26권 완간으로 회향을 보게 됐다. 이번에 간행된 마지막 세 권(24~26)은 〈화엄경〉 80권 본 39품 중 마지막 39품(입법계품)에 해당한다.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 전26권 출간 불사는 스님의 스승인 탄허 스님(1913~1983)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불교 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방광불화엄경〉(약칭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최상의 경전이다. 하지만 〈화엄경〉은 내용이 워낙 깊고 오묘하고, 그 분량 또한 방대해서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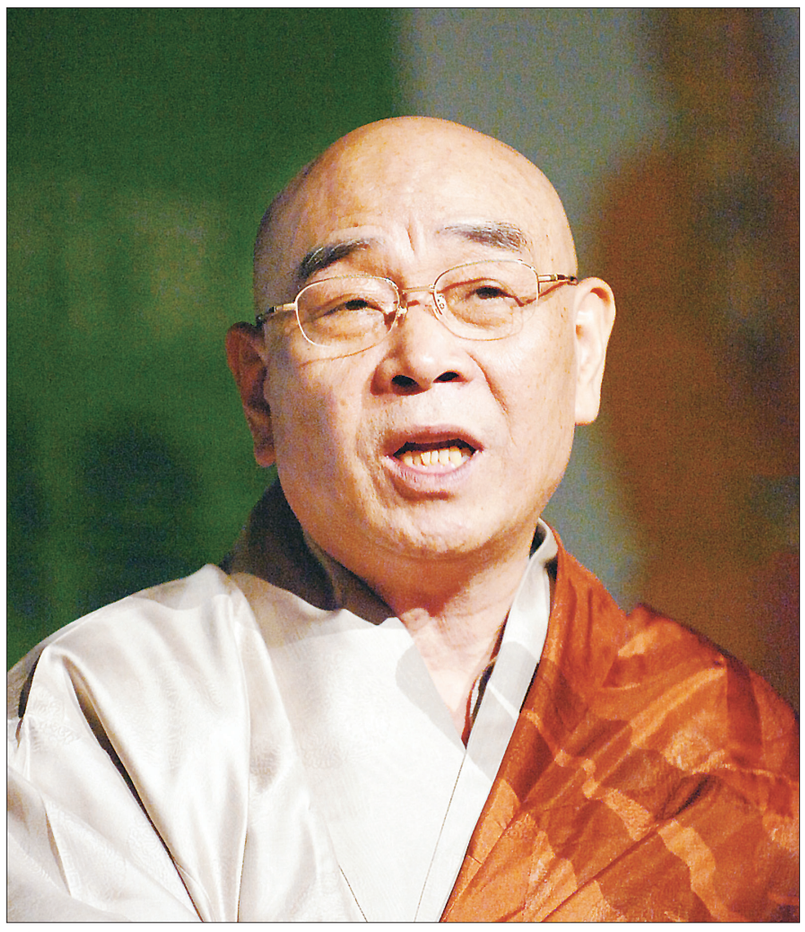
대중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당대의 대강백 탄허 스님은 대중을 위해 〈화엄경〉 번역을 비롯해 화엄학 관련서를 모두 집대성하고, '현토역해'해 〈신화엄경합론〉(전 47권)을 간행하는, 그야말로 한국 근대불교사에 획기적인 불사를 남겼다.(1975년) 번역과 출판에 무려 17년이 걸렸으며, 원고 매수가 6만2000장에 이르는 대작불사였다. 탄허 스님의 역경불사를 계기로 스님들을 비롯해 재가불자까지도 〈화엄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공부'하는 신행 풍토가 늘어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 출간으로 오랜 시간 많은 대중이 공부에 대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급변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세대마다 대중은 여전히 선지식의 도움이 필요했다. 탄허 스님의 불사가 있은 후 반세기가 흐르고, 그 시대의 대중은 또 다시 좀 더 시대에 맞는 문장이 필요했다. 대중의 안목으로는 여전히 방대하게 집대성한 〈화엄경〉의 요체를 쉽게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이다.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화엄경〉의 개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한 〈화엄경〉 강설이 필요했다.

혜거스님 〈화엄경소론찬요〉 26권 완간
2016년 시작 10년 걸쳐 대작불사 완성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현토해 편저
탄허 스님 번역 참고, 사족 없는 직역
대중을 위한 화엄경 불사, 마지막 사명
〈화엄경〉의 묘체 밝힌 최고의 '주석서'
"스승이 처음 권한 경전이 〈화엄경〉"

탄허 스님의 제자인 혜거 스님이 스승의 원력을 이었다. 스님은 불교TV를 통해 〈화엄경〉 강좌를 열고, 이를 토대로 〈화엄경〉 역경의 또 다른 원력을 세우게 된다.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현토해 완역하는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 완간에 대한 원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사였다. 스님은 평생을 경전 연구에 바친 학승으로서, 오늘의 대중을 위해 〈화엄경〉의 요체를 제대로 밝혀주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혜거 스님은 번역을 모두 마친 후 지병의 악화로 완간을 보지 못하고 세연을 접었다. 이번 완간본은 스님의 100재에 맞춰 스님 영전에 올려졌다.

〈화엄경소론찬요〉는 명말청초 때의 도패(1615~1702) 대사가 약술 편저한 것으로, 청량 국사의 〈화엄경소초〉와 이통현의 〈화엄경론〉의 정요만을 뽑아 편집했다. 청량의 소초는 철저한 장구(章句)의 분석으로 본말을 지극히 밝혀주었고, 통현론은 부처님의 논지를 널리 논변해 자심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청량의 소초와 통현론은 〈화엄경〉을 상세하게 해석한 양대 명저이다. 〈화엄경소론찬요〉는 이 방대한 해석을 보다 쉽고 간명하게 축약하여 동시에 풀어주고 있어, 〈화엄경〉의 묘체를 밝혀주는 오늘날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소론찬요〉의 편저자 혜거 스님.


〈화엄경소론찬요〉 전 26권.

혜거 스님은 이 〈화엄경소론찬요〉를 대본으로 하고, 다시 탄허 스님의 번역을 참고하면서 현대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로 편저했다. 혜거 스님의 번역은 군더더기가 없는 직역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번역 당시에 맞는 문체로만 번역하게 되면 변하는 시대마다 또 다시 새로운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 변화와 무관한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번 불사의 또 하나의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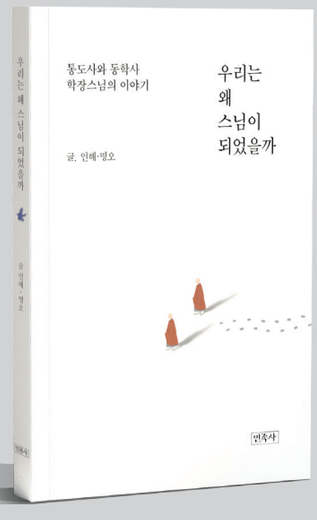
〈화엄경〉은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진리의 세계는 중중무진 연기의 세계이며 동체대비 사상이 실현되는 곳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화엄경〉이다.

혜거 스님이 입산해 처음으로 손에 들게 된 경전이 〈화엄경〉이었다고 한다. 스승인 탄허 스님이 행자였던 혜거 스님에게 "화엄경을 청강하라"며 "설령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들어두면 글눈이 생겨 안 들은 것보다 낫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편저자 혜거 스님은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김제 흥복사 등에서 수선안거했다. 1988년 금강선원을 개원했고,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상담과 경전강의, 불교TV 경전강의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금강선원 선원장을 비롯해 〈한암대종사문집〉 및 〈탄허대화상문집〉 편찬위원장, 동국역경원 원장, 대원정사 회주,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유지회원,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청소년심성개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생전 저술과 번역, 강론을 통해 불법을 홍포하는 자비보시행을 실천해온 스님은 2024년 11월 4일 금강선원에서 입적했다.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